

“신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국가 차원 인센티브 필요”

전남도, 지방교부세 측정 항목에 태양광·풍력 설비량 신설 건의

전남도는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지립률 20% 달성을 목표로 한 것과 관련,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지방교부세 측정 항목에 태양광·풍력 설비량을 신설하는 등 국가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에너지 전환이 이슈인 시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없이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동시에 실질적 혜택을 줘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2015년 말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태양광 설비량이 920MW로 전국(3615MW)의 25.4%를 차지하고 있다.

풍력 설비량은 137MW로 전국(853MW)의 16.1%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현황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자체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전혀 없다.

이런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소음·진동·환경파괴 등 민원 증가로 발전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 거리를 규제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최대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인법적 보완과 지자체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전남도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부응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시군의 참여 유도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5조 측정항목(지역

경제비 중 다목 산업경제비)의 측정단위에 태양광풍력 설비량을 추가할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또 불합리한 정부 규제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매립법 등의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부지 확충의 필요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해 왔다.

임채영 전남도 경제과학국장은 “도는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0%로 높이기 위해 태양광 2500MW, 풍력 2500MW, 해양에너지 383MW 건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촌 태양광 보급사업’과 ‘마을 기업형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등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광주시, 시립초록 나무어린이집 개원
광산구 평동 2차 신단 내

광주시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이집 확대 계획에 발맞춰 광산구 평동 2차 신단 내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에 신설한 시립초록나무어린이집이 오는 24일 개원한다.

시립 초록나무어린이집은 299㎡ 규모에 4개의 보육실을 갖추고 있으며, 정원 39명이다.

공공경쟁에 의한 위탁운영체 공모 결과 호남대학교가 선정돼 3년 동안 운영하게 된다.

광주에는 2013년 북구 첨단체육공원 내 개원한 시립보듬이어린이집을 포함, 9월말 현재 총 31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다.

시립어린이집은 광역시 중 광주와 부산, 대전에서만 운영 중이며, 광주는 이번 초록나무어린이집 개원으로 시립어린이집이 총 2곳으로 늘게 됐다.

서은홍 기자

코레일 광주본부
선로변 공중사상사고
예방 안전캠페인 전개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본부장 김현섭)는 지난 19일 가을 행락철을 맞아 선로변 공중사상사고, 자살 예방 및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광주시 주요 철도건널목에서 철도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철도교통안전 캠페인은 최근 선로변 공중사상사고 및 건널목사고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철도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함과 동시에 △자살예방 △철도건널목 앞 일대정지 △철도 및 역 시설물 내 무단통행 △25,000V고압이 흐르는 전차선 접촉 주의(중선, 낚시대 등) 등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철도인근 주민들의 안전불감증 및 선로변 농작물 경작자의 위험요인을 알려주고 주민 생명보호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하여 지역사회 단체 및 선로변 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계몽 활동을 시행했다.

서은홍 기자

자원봉사자 활약 덕 총장축제 성공 이끈다

‘제14회 추억의 총장축제’가 지난 22일 폐막식을 끝으로 대안원의 막을 내린 가운데 광주 동구는 자원봉사자들의 숨은 열정과 노력으로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총장축제는 예년과는 차원이 다른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으로 축제의 질적 성장은 물론 거리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쾌적한 축제환경을 유지하며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이번 총장축제에서는 13개동 자원봉사팀연합회 등 46개 단체 자원봉사자 일 300명, 5일간 1500명이 ▲행사장 안내 ▲질서·정결 유지 ▲외국관광객 통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축제성공을 이끌었다.

서구, 박웅현 대표 초청 주민 아카데미 개최

광주 서구청이 광고계의 비디스의 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박웅현 대표를 초청, 주민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서구는 “오는 25일 TBWA KOREA 박웅현 크리에이티브 대표를 초청해 으뜸서구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펼쳐질 이번 강좌는 25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강좌에는 ‘디자인 한국의 꿈’, ‘책은 도끼다’ ‘여덟 단어 등 다수의 저서를 펴낸 박웅현 씨가 강사로 나와 ‘인문학으로 광고하다’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치게 된다.

남구, 내일 지속가능발전 세미나 개최

광주 남구는 산업화 및 인구 증가,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 파괴와 주택, 식수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한다.

20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광주 남구 지속가능발전 세미나’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청 6층 중회의실에서 열리며,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및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등 150명 가량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다루지는 주된 의제는 환경 보호와 일자리 창출이다.

북구, 국화꽃 향기 가득한 가을에 빠져보세요

광주 북구가 구청 광장을 아름다운 국화정원으로 단장하고 주민들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북구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8일까지 북구청 광장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국화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북구는 시민들이 아름답게 핀 국화꽃을 보면서 지친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전시기간 동안 청사광장에 대국, 소국, 다채문자 등 형형색색의 80여만민숭이 국화와 국화본체 30점을 선보인다.

또한, 광장 중앙 꽃전시 테마를 ‘정(情)이 오가는 국화정원’으로 정하고 다양한 국화를 전시하여 시민들에게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주민참여 공모를 통해 조성한 국화정원도 전시할 예정이다.

광산구, RTES와 사회적경제 강화 협정 체결

민형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광주 광산구청장)이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프랑스 전국 지방정부네트워크(이하 ‘RTES’)와 19일(이하 현지 시각) 상호협력의향협정을 체결했다. RTES가 사회적경제 강화를 위해 국제 협정을 체결한 파트너는 한국이 최초이다.

민 구청장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 자격으로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정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국과 프랑스의 연대와 협력을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육, 사회적경제,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류, 각 기관의 국제회의 지원, 사회적기업 정보 공유, 정책 벤치마킹 등이다.

임형택 기자

목포~강원 고성... ‘평화통일 염원’한 전남 초등학교생

전남도교육청 ‘제1회 울곡통일리더스쿨’ 수료



전남지역 초등학교생들이 목포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7박8일간 열차를 타고 가며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제1회 울곡통일리더스쿨’을 마치고 지난 21일 목포역 광장에서 수료식을 갖고 있다.

전남지역 초등학교생들이 목포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7박8일간 열차를 타고 가며 평화 통일을 염원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리더의 역할을 배웠다.

전남도교육청은 ‘제1회 울곡통일리더스쿨’ 수료식을 지난 21일 목포역 광장에서 학생과 학부모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울곡통일리더스쿨은 전남지역 초등학교 6학년 118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7박8일 동안 미래 통일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전남도교육청과 육군 제22보병사단이 공동으로 운영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14일 목포에서 출정식을 갖고 통일열차로 강원 고성까지 이동하며 울곡과 관련한 독서·토

론과 다양한 통일 비전 세우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사전 교육을 포함한 통일 씨앗 뿌리기, 싹 틔우기, 꽃 피우기, 열매 나누기로 진행했으며, 울곡의 심판정설과 분단 상황 이해를 통해 미래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리더의 역할과 자세를 배웠다.

열차 안에서 울곡 아이의 생애를 탐구하고 국회고성연수원에서는 통일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을 했다.

육군 제22보병사단과의 업무협약에 의해 이뤄진 통일 꽃 피우기 부대체험은 17~20일 3박4일 동안 신병교육대에서 진행했다.

학생들은 국도 최남단에서 최북단의 낯선 곳을 경험하고 전차 탑승과 오울렛초소(OP) 통일 글쓰기, 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군부대 활동을 통해 나라사랑과 자아성찰의 계기를 가졌다.

통일 열매 나누기 활동을 위해 정동진에서 목포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미래로 가는 통일열차 갤러리 워크를 진행했다.

김정환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재기자 모집합니다”

고흥 · 구례 · 목포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상속증여
- 기업 진단
- 기 장 대 리
- 건설면허신청
- 외부 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융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석면 해체공사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석면조사

측량 >> 토목 설계 >> 도시 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실험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